

홈 ? 뉴스 ? 학술 연구

포스텍 교수 3인 '세아석좌교수'로

박찬경·차형준·한세광 교수 연구비 지원받아

2012년 04월 12일 (목) 17:00:12

김봉구 기자 paper81@unn.net



▲ 왼쪽부터 박찬경·차형준·한세광 교수.

포스텍(총장 김용민) 교수 3인이 세아제강이 지원하는 '세아석좌교수'에 임명돼 연구비를 지원받는다.

포스텍은 박찬경·한세광(이상 신소재공학과)·차형준(화학공학과) 교수가 세아석좌교수로 추대됐다고 12일 밝혔다. 이 제도는 세아제강이 국내 재료금속분야 학문 발전과 산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포스텍에 출연한 기금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.

박 교수는 '세아석좌교수'로, 40대의 한 교수와 차 교수는 '세아젊은석좌교수'로 각각 추대됐다. 3년간 세아석좌교수는 9000만원을, 세아젊은석좌교수는 6000만원씩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.

박 교수는 국내의 저명한 전자현미경 분석가로 철강 연구와 금속·세라믹 코팅, 나노공학 분야에서 첨단신소재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
한 교수는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이용해 신약을 만들어내며 나노의약품 생체재료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, 차 교수는 흉합에서 고성능 바이오접착소재를 뽑아내는 등 의료용 생체 접착소재 상용화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을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각각 석좌교수로 임명됐다.

© 한국대학신문 |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